

사회제도 국책사업 '문화영향평가' 실시된다

문화영향평가제에 초점 기초연구 진행... 내년 입법 작업

불교계 의견 반영되도록 관심 가져야

“대입제도의 변화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생활패턴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 또 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이 수험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문화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이 같은 사회제도나 국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을 검토하고 평가하는 '문화영향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특히 각종 사업의 목적이 '개발'보다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지지여기 초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교계도 불교전문문화와 자연환경, 수험환경은 물론 불자들의 여법한 신행활동을 위해 입법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영향평가제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각종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할 때 국민의 문화적 삶과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미치는 장단기적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02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청사건으로 제시한 이래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인 문화연대 문화사회연구소가 1차 연구를 끝냈

고 현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이 2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문 광부는 2005년 1월 2차 연구보고서 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작업에 돌입한 다는 계획이다.

문화영향평가제는 환경영향평 가와 같이 정책이나 사업 진행 전후에 발생하는 '영향'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 해 등의 영역에 국한된 것에 비해 문화영향평가는 일상생활영역부 터 거대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영역에서 깊이 있게 진행된다. 점 에서 그 효과와 파급력은 적지 않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쓰레 기 분리수거제’가 국민의 문화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서부터 ‘외국 인도노동자 정책이 외국인의 한국 문화 인식에 끼치는 영향’에 이르 기까지 그 대상은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책 전반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불교계의 경우 ‘위락시설이 스 님들의 수행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나 ‘대형개발공사와 신도들의 신행활동과의 관계’와 같은 문제 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문화 재보호구역에서 500m이내 에 시설을 건립할 때 문화 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규정도 문화영향평가의 적용으로 보다 엄격해서 사할

주위의 난개발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문화가 문화영향평가 대상 이 될 경우 사찰에서 진행되는 법 회는 종교문화행사로, 각종 문화 재는 문화유산으로서 위치를 확 고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재 불교문화가 명확 하게 문화영향평가 대상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 다. 그렇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문 화의 ‘정수’인 불교문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 라서 제도마련과정에서부터 불교계 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제기했 듯이 문화영향평가대상에 불교문 화가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다. 불 교문화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지만 제 역 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복 한산과 천성산 문제에서 입증된 바 있다. 또 ‘역사문화보존구역’ 지정을 핵심으로 하는 전통사찰 보존법 개정이 정부와 불교 관계 자들의 ‘역사문화보존’ 개념에 대 한 인식 차이로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에서 불교문화가 문화영향평 가 대상이 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와 함께 구체적인 ‘안’을 마 련해 문화부에 제시하는 것도 필 요하다. 특히 수행환경이나 신행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평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하기 때 문에 상세한 ‘안’을 마련하는 것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밀양대 환경공학과 이병인 교 수는 “문화적 삶 영역 차원에서 문화영향평가는 중요하다”며 “불 교계도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인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 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그림 박구원



“나무아미타불~나무아미타불...” 골도 없이 이어지는 염불소리가 금정산을 타고 오르는 가운데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영결식을 마친 후 석주 스님의 법구가 다비정으로 이운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만행보살이시여 다시 오소서!”

석주당 정일 대종사 14일 원적... 18일 원로회의 4연

조계종 총무원장과 원로의원을 역임한 석주(普珠)당 정일(正一) 대 종사가 11월 14일 아산 보문사에서 원적했다. 세수 96세, 법랍 81세.

18일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범어사 보제루에서 봉행된 영결식에서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은 “스님은 우리 종문(宗門)의 종장(宗匠)이었고 법시(法施)의 문을 넓히고 전통(傳統)의 불꽃을 이어서 감로법포로 종생의 마음을 비옥케 한 만행보살이셨다”며 애도했다.

조계종 종장 법전 스님은 “삼라만 상이 노화상의 법신(法身)이요, 일체

음색이 노화상의 법음(法音)입니다. 이렇게 불사의(不思議)한 능력과 묘 용을 갖춘 노화상의 면목이 어느 곳 에 있습니까?”라고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도 “큰 스님의 업적은 극천(極天)하고 광대 하여 우리 조계종단의 큰 기둥이셨 으며 주인이셨다”라며 애석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조운제 청와대

불자회장이 대독한 조사를 통해 “서 로 용서라고 화합하면 갈등이 해결 될 것이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값진 교훈으로 남아 있다”며 스님의 공덕 을 기렸다.

“금정산인” 석주 스님 법구는 범어 사 다비장으로 이운돼 육신을 벗고 본래면목으로 돌아갔다. 관련기사 4면

부산=최희 기자



그림 조태호

혜정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대웅전에서 紫金光을 받하니...”

법전 스님, 北 신계사 대웅보전 낙성식 법어 발표



내렸다.

법전 스님은 법어에서 “이제 시절

조계종 종 정 법전 스님 (사진)이 11 월 20일 금강 산 신계사터 에서 봉행된 대웅보전 낙 성식 법어를

인연이 도래하여 청홍단정(靑紅丹 靑) 팔작처마 대웅전에서 자금광(紫 金光)을 받(發)하니 백두에서 한라까 지 남북을 비추고 동서로 뻗어 천하 를 덮는구나”라고 말했다.

또 “대결과 갈등은 화해와 단결 로 바뀌고 분단과 단절은 교류와 소 통으로 변화하고 번뇌와 차별은 보 리와 평등으로 승화되는구나. 무명 인(無明人)은 유남북(有南北)이나

명안(失明眼)은 무상(無上下)로 다. 어두운 사람엔 남북이 있으나 는 밝은 사람은 상하조차도 없다”라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 교류 의 소통, 깨달음과 평등의 세상을 설했다.

(신계사 대웅전 낙성법회 관련 현장 기사 www.buddhanews.com, 다음호 상세보도)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본사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2004 사회복지언론상' 수상

부산불교사회복지관협 주최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회장 혜종)가 주최하는 '2004 사회복지언론상'에 선정됐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이 춘성 부관장은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나눔의 손잡기 캠페인’ 등의 사업을 통해 불교사회 복지에 기여한 공로가 커 이같이 결

정했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언론인상은 불교사회 복지사업의 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및 언론인들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2001년에는 EBS, 2002년 부산 BBS, 2003년 부산일보가 수상했 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5 시, 경주 하일라콘도에서 열릴 계획 이다. (051)628-6737

김은경 기자 ikck@buddhapia.com

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 大宗師 元老會議葬 寂

<p>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 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p> <p>051-089-31217 508-6006</p>	<p>執行委員長 都 兼 乘 知 財 書 接 院 護 別 侍 茶 進 連 駐 門 恩 上 孫 在 家 弟 子</p> <p>副委員長 吳 連 緒 處 處 長 金 井 山 佛 魚 寺 普 濟 樓</p> <p>委員長 吳 連 緒 處 處 長 金 井 山 佛 魚 寺 普 濟 樓</p> <p>副委員長 吳 連 緒 處 處 長 金 井 山 佛 魚 寺 普 濟 樓</p> <p>委員長 吳 連 緒 處 處 長 金 井 山 佛 魚 寺 普 濟 樓</p> <p>副委員長 吳 連 緒 處 處 長 金 井 山 佛 魚 寺 普 濟 樓</p>	<p>大韓佛敎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 大宗師 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8 (2004) 年 11월 14日 陰曆 10月 3日 午後 4時 경 宗南 아사시 지암 普濟樓에서 圓寂하시어 法體를 安립하셨습니다.</p> <p>永訣日時: 佛紀 2548 (2004) 年 11월 18日 陰曆 10月 7日 오전 11시</p> <p>永訣式場: 釜山 禪刹 大本山 金井山 佛魚寺 普濟樓</p> <p>茶毘場: 釜山 禪刹 大本山 金井山 佛魚寺 蓮花臺</p>	<p>訃告</p> <p>大韓佛敎曹溪宗 元老 昔珠堂 正一 大宗師 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48 (2004) 年 11월 14日 陰曆 10月 3日 午後 4時 경 宗南 아사시 지암 普濟樓에서 圓寂하시어 法體를 安립하셨습니다.</p> <p>永訣日時: 佛紀 2548 (2004) 年 11월 18日 陰曆 10月 7日 오전 11시</p> <p>永訣式場: 釜山 禪刹 大本山 金井山 佛魚寺 普濟樓</p> <p>茶毘場: 釜山 禪刹 大本山 金井山 佛魚寺 蓮花臺</p>
--	--	--	--